

# 새삼스레 조명받는 사회민주주의

## 전반적 관심고조 불구하고 관련서적 거의 없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일련의 진보적인 움직임 가운데 최근,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대안으로서 사회민주주의 모델에 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관련서적에 대한 관심이 새삼스럽게 높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관심고조는 일단 현실제도로써의 공산주의가 위기에 처하면서 소련과 동구권에 일기 시작한 개혁열풍에 힘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한때 사회민주주의자들을 '파시즘의 온전파'라고까지 극렬히 비난했던 맑시스트들이 '인간화된 사회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가능한 노선의 하나로 사회민주주의를 재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공산권의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종합 월간지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사회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스웨덴 관련 기사를 앞다투어 실음으로써 국내독자들의 관심고조에 한몫 거들고 있는 실정이다.

### 태부족한 사회민주주의 관련도서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일정하게 부응할 만한 출판물은 현실적으로 태부족한 상태. 수많은 중수의 사회과학도서가 쏟아져 나왔던 전시대의 출판풍토를 기억할 때, 사회민주주의 관련도서의 양적 부족은 시사하는 바 많다.

독일사회민주주의의 '원조'인 베른슈타인을 비롯해 8명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글을 수록한 「사회민주주의(양호민 엮음, 종로서적)는 사회민주주의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는 책이다. 전체

3부로 나뉘어진 이 책은, 제1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에서는 사민주의 이론가들의 글이 연대순으로 실려 있어 그들의 이념지향성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데, 특히 마르크스주의와의 변별성이 깊이 있게 논하여졌다. 제2부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문제」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제모델의 세형태인 자본주의, 복지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교검토가 있어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경제적 민주화의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제3부에는, 제2인터내셔널 붕괴이후 세계 사회민주세력의 중심점이 된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의 기본강령인 프랑크푸르트선언을 비롯해 오슬로선언, 독일사회민주당 기본강령, 프랑스 사회당 헌장 등 주요 선언문이 실려 있다. 위언이인 양호민씨의 논문 「사회민주주의의 원류와 발전」이 서론으로 실려 있어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Thomas Meyer가 1980년에 편집한 「민주사회주의의 정신적 토대들과 미래의 길들」을 저본으로 삼아 윤근식교수가 재편집한 「사회민주주의론」(석탑)은 10편의 논문전체가 독일사회민주당의 핵심적 이론가들이 쓴 글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책. 전체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19개의 테제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2부 「사회주의의 실제」에는 유럽에 있어서의 사회민주주의의 실제적 운용의 현황을 소개함과 더불어 제3세계에 대한 독일사민당의 입장이 피력되어 있다.

「민주사회주의」(토마스 마이어 지음, 이병

### 최근 사회민주주의 모델에 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관련서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일단 공산주의가

위기에 처하면서 소련과 동구권에

일기 시작한 개혁열풍에

힘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 고조되고 있는

관심에 부응할 만한 출판물은

태부족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희 옮김, 인간사랑)는 사회주의의 기원과 원칙, 그리고 전개과정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진영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의 핵심을 36개의 테제로 요약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입문서.

이 책의 저자는 특히, 서구중심의 민주사회주의 운동을 비판하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제3세계 사회적 패턴으로부터 선진국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이채롭다. 이밖에도 민주사회주의의 기원과 발전과정, 그리고 목표와 경험을 객관적인 도표와 사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 민주사회주의에 관한 일반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사민주의에 대한 피상적 이해 극복해야

사회민주주의와 관련한 국내저작은 단 한편도 없는 형편이다. 이런 실정에서 숭실대학교

기독교 사회연구소가 펴낸 「사회발전과 사회운동」(한울)에는 사회민주주의와 관련한 국내 연구자의 논문이 실려 있어 주목을 끈다. 지난해 '사회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동연구소의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신광영교수(한림대 사회학과)의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이 바로 그것인데, 이 논문은 같은 날 발표된 최장집교수(고려대 정외과)의 「민중민주주의의 구상」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

이 책에는 또한 각기 다른 경향의 대안이 발표된 이후 전개된 패럴토의부분도 수록하고 있어 사회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이해수준과 함께 논쟁점이 부각되어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신광영교수는 그간 우리 사회에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소개가 일천했던 까닭을 "서구사회에서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치열하게 전개된 수정주의 논쟁에 대한 피상적 이해의 결과로 사회민주주의를 사시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보다 활기를 띤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 역사적 조건 아래서 어떤 유형의 사회민주주의체제가 등장했는가를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그러한 조건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조건을 성숙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우 기자

국내최초공개!  
"우주 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농부(마이아)가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 독자 여러분 신비한 UFO 비행음을 지금 즉시 들어 보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들을수 있습니다.)

전자식 전화기로 152번을 누르면 사서함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다시 8159번을 누르시면 우주여인<셈야제>의 UFO 비행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은 (02) 152번을 누르세요.>  
●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아>와 우주여인<셈야제> 일본N.TV에서 농부<마이아>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이야기! 삭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 화제의 장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셈야제>와 농부<마이아>이야기—  
● 농부<마이아>의 충격 ●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 현재 성경은 위서(僞書)인가 ●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 바울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 예수탄생의 비밀 ● IBM보오겔 박사의 증언 ●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셈야제>  
● 오다까 오시아 엮음 ● 정우인 옮김 ● 사진제공 농부 마이아 ●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신국판/242면/값3,500원

도서주문 진명서적 : (02) 272-5871  
을지서적 : (02) 757-8991

시어사 대표전화 : (02) 549-6817  
F A X : (02) 549-6816